

제주방언 얼마나 생존할까?

백응진 (오오사카경제법과대학/토론토대학)

0. 들어가기

한국의 제주방언은 서울 표준어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Ōsaka 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Korean 들의 제주방언도 일본어와 한국어 타 방언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가고 있다. 제주방언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60 대 이하의 화자들은 제주방언의 표징인 중세국어의 음가‘ㄹ’[ɾ]는 발화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일본 Ōsaka 에 거주하는 60 세 이하의 제주도 출신 Korean 들의 제주방언에서도 중세국어의 음가‘ㄹ’[ɾ]는 발화되지 않고 있다. 저설후모음‘ㄹ’가 소멸되어 가는 것은 한국에서는 서울표준어와의 접촉에 의한 것이고, 일본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의 다른 방언과의 접촉에 의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먼저 일본 Ōsaka 의 Korean 커뮤니티와 Korean 들의 언어 구사 현황을 소개하고, Ōsaka 에서 제주방언의‘ㄹ’가 소멸되어 가는 현상을 현효평(1971)이 제시한 제주방언의 2 중 모음체계에 비추어 관찰하려고 한다. 현효평(1971, 1982))은 1960 년대 약 40 년 전의 제주방언은 장년층의 9 모음체계와 연소층의 7 모음체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연소층의 7 모음체계가 장차 확립될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라고 예언한 바가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현재 Ōsaka 제주방언에서‘ㄹ’의 소멸 과정과 전설저모음‘ㄹ’의‘ㄹ’와의 합류 현상을 분석하여, 제주방언의 7 모음체계란 것은 보수적 9 모음체계가 변천하는 격류에 휩쓸려 동요하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제주방언 9 모음체계의 붕괴와 더불어 7 모음체계도 소멸해 버릴 운명에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제주방언의 모음체계가 특히‘ㄹ’가 ‘ㄹ’와 합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초, 중등학교에서의 서울표준어 교육도 영향이 컸겠지만, 6.25 (1950-53) 동란 중에 허다한 피란민이 제주도에 상륙하게 되어, 제주방언이 서울표준어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Ōsaka 의 제주방언에서 현효평(1971, 1982)의 연소층 7 모음체계란 70 대, 60 대, 50 대의 일부 화자들의 발화에서 탐지되기는 해도, 현효평(1971, 1982)의 예언처럼 확립되었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제주방언 모음체계는 타 방언 특히 서울표준어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서울표준어의 모음체계가 전설저모음‘ㄹ’를 내포하고 있는 한, 제주방언 화자들도‘ㄹ’를 보존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일본 Ōsaka 제주방언 모음체계의 현상을 중국 Heilongjiang 성 현대만주어의 현상과 비교하여, 제주방언은 현대만주어와 동일한 길을 걷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현재 80 대 이상의 제주방언 화자들의 사망과 더불어 Ōsaka 제주방언은 그 화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여 소멸해 버릴 것이다.

1. 재일 Korean 커뮤니티

1992 년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에 의하면 일본 거주 Korean 은 약 70 만명(688,144 명)으로, 이들 의 일본 내 지역별 분포 상황을 (1)과 같다.

(1) Okinawa 299 Kyūshū-chihō 34,009

Chyūoku-chihō 41,017 Shikoku-chihō 4,335

Kinki-chihō 328,436 Chūbu-chihō 90,490

Kantō-chihō 172,389 Tōhoku-chihō 10,825

Hokkaidō 6,344

한편 1999 년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자 수는 합계 약 1,506,000 명인데, 그중 재일 Korean 이 636,000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0.9%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다. 1999 년 현재 재일 Korean 의 숫자와 1992 년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52,144 명이 감소되었는데, 이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는 재일 Korean 1 세들이 고령으로 인하여 사망해 가고, 2 세, 3 세들이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데 기인한다고 한다. (김정자 2000, 6)

재일 Korean 의 일본 거주 지역별 분포 상황을 보면 Ōsaka-fu 를 중심으로 Kinki-chihō 에 재일 Korean 의 약 반수(328,436 명)가 거주하고 있고, Ōsaka-fu 에 약 20 만명(183,322 명)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Ōsaka-fu 에서도 특히 Ōsaka-shi 의 Ikuno-ku 는 2002 년 6 월 현재 인구가 약 14 만(140,479)명인데, 이중 Korean 은 34,200 명으로 Ikuno-ku 전인구의 4 분의 1 이 Korean 들이다. Ikuno-ku 의 Korean 계의 주민 중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적지 않은 숫자의 Korean 들을 감안하면 Ikuno-ku 전인구의 3 분의 1 이 Korean 들이라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Ikuno-ku 는 재일 Korean 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Ikuno-ku 는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공존 지역이라고 한다. (김미선 1998, 136)

Korean 들이 일본으로 도항하기는 1910 년 한일합병과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 농민들이 토지 경작권을 상실하여 일본으로 도항하거나, 일본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일본 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이주시켰을 때부터이라고 한다. 이들은 거의 전부가 노동자들이다.

1924 년도 조사된 Ōsaka-fu 의 Korean 들의 숫자는 1,000 명인데, 이들의 한국 출신지는 (2)와 같다.

(2) 제주도 609 전라북도 9

전라남도 192 강원도 4

경상남도 85 충청북도 3

경상북도 55 평안남도 3

경기도 18 함경남도 3

충청남도 17 함경북도 2

(2)를 보면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출신 Korean 들이 대부분 1920 년대 Ōsaka 의 Korean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주도 출신 Korean 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 Ōsaka 의 Korean 커뮤니티는 제주도 출신 도항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Sugihara(1998)에 의하면, 제주도민 약 25 만명 가운데 5 분의 1 인 5 만명이 일본으로 도항하였다고 한다. 한편 김미선(1998)에 의하면, 제주도 출신자가 코리안 전체의 약 4 분 3 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특히 Ikuno-ku 에는 새로운 제주도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는데, Ikuno-ku 는 '일본의 제주도'라고 불리워질 만큼 제주도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가 투영된 지역이라고 한다.^(김미선 1998, 137) Ikuno-ku 의 제주 출신 코리안들은 보수적 제주방언을 보존하고 있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제주의 옛 토속 문화를 잘 계승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사 상 차리는데 있어서 20 세기초 식민지 시절 1 세 도항자들이 제주를 떠날 飜의 제사 상 차리는 모습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Korean 들의 언어 구사 상황은 세대의 차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1 세 Korean 들의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제도적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1 세들의 제 1 언어는 물론 도일 당시의 한국의 고향에서 어려서 습득한 방언이며, 일본어는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습득한 구어체의 일본어로써 교육 받은 일본인들의 언어는 아니어서, 대화에서 종종 정확하지 않은 일본어를 구사한다고 한다. 특히 Ōsaka 지역은 Tōkyō 방언과 다른 Kansaiben 라고 불리는 Ōsaka 특유한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이어서, Korean 들은 이 Kansaiben 을 일본에 생활하면서 습득하였다. 이 Kansaiben 마저 음운, 통어, 어휘의 전반에서 제 1 언어인 한국어의 간섭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김미선 1998, 139)

2 세 이후의 Korean 들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의 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인과 다름없는 일본어를 구사한다. 2 세들은 개인차는 있지만 1 세들이 구사하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알아듣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이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는 1 세들에게서 모방 습득한 불완전한 한국어로, 이는 일본어 음운의 간섭을 받은 한국어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음절말의 연구개비음‘뽀’[ŋ]은 치경비음‘滄’[n]으로 조음되고, 한국어 중설고모음‘엿’[ɪ]는 후설모음‘엿’[u]으로 조음된다. 3 세는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고, 1 세와 2 세들의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습득한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어휘 몇 개 정도를 그들의 제 1 언어인 일본어에 차용하여 사용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국적이 '조선'인 2 세, 3 세들 중 일부는 조총련의 민족학교에서 조선어를 습득하여 조선어를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여학생은 전통 Korea 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등교하는데, Ōsaka 에서 특히 Ikuno-ku 에서 거문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모습을 흔하게 본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informants)은 Ōsaka-shi 의 Ikuno-ku 에 위치한 Ikuno 천주교회의 교인들로서 연령은 60 세 이상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1945 년 종전 이전에 일본으로 도향하였다. Ikuno 천주교회에는 60 세 이상인 제주도 출신 교인이 40 여명 있는데, 이들은 고되고 어려운 파란만장의 해외 이민 생활에서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돈독한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의 하나인 92 세 된 할머니는 교회에서 필자가 보통 도보로 5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할머니는 집으로 걸어 가는데 1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일요일이면 가깝고도 먼 교회 미사에 참석한다. 이것은 이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심이 견고하고 깊은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연령 별로 보면 94 세의 할머니가 최고령이기는 해도 80 대, 70 대, 60 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골고루 다 교회에 나온다. 이 조사에는 50 대와 40 대의 정보제공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제주에서 출생, 성장하며 중등 교육을 받았는데, 일본으로 도향해 온 것은 14 년 내지 10 년 전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언어는 현재 한국 제주도의 50 대와 40 대의 화자들의 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85 세 ‘Sun’이라는 할머니의 제주방언 발화는 김미선 박사가 협조하여 녹음해 준 테이프를 듣고 필자가 분석한 것이다. 김미선 박사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본 연구에 협조한 정보제공자들의 언어 구사는 물론 제주 방언이 모어(제 1 언어)이긴 해도 일본어도 하고, 한편 제주 방언이 아닌 서울 표준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화자들과도 빈번한 접촉을 하여, 3 중 언어적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본다. 화자가 처해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제주방언이 모어인 대화자들과는 제주 방언을 사용하고, 타 방언 화자들과는

그들의 방언을 모방하며, 한편 일본인들과는 일본어를 구사한다.
Ikuno 천주교회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공동체로써 일본인 교인들도 적지 않다.
일요일 9 시는 일본인을 위한 일본어 미사가 있고, 10 시 30 분에는 한국인들의
위한 한국어 미사가 있다. 이와 같이 제주방언, 한국어의 타 지역 방언, 일본어
등 3 중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제주 방언은 일본어와 한국의 타 지역
방언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타 지역 방언의 간섭 특히 서울 표준어의
간섭이 일본어의 간섭보다도 큰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의 제주방언

한국의 제주 방언 연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
종합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현효평이라고 생각된다.
1962년에는 『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 초판을 출판하였는데. 음운론
분야에서는, (1) 1963년에 「제주도 방언‘ㄹ’음 소고」와, (2) 「제주도
방언‘ㅅ’[ʃ] 음에 대하여」. (3) 1964년에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설정」, (4)
1971에 「제주도 방언의 음운」, (5) 1971년에 「제주도 방언의 음운」, (6)
1982년에 「제주도 방언의 개관」 등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는
자기가 출판한 논문을 전부 한권에 묶어, 『제주도방언연구 논공편』을
출판하였다.

현효평은 그의 1963의 논문에서 제주방언의‘ㄹ’음은 15세기의‘ㄹ’음이
잔존하여 있는 음으로써 16세기 후반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ㄹ’의
음가는 'ㄹ'의 후고음이임을 논증하였다. 그는 이어서 1964년에 제주방언에서
전설주모음‘ㄹ’와 전설저모‘ㅅ’가 잘 구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은‘ㅅ’의 조음
위치가‘ㄹ’와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64년에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음소로써는 전설모음에 /i/, /e/, /ʏ/ 셋이고, 중설모음에
/ɪ/, /ɛ/, /a/ 셋이고,, 후설모음에 /u/, /o/, /ɔ/ 셋임은 논증하며,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는 9개 단모음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증언하였다.

1970 년대에 들어서, 현효평은 제주방언이 모어인 화자들의 연령층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모음체계가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1971 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제주도 방언에는 단모음 음소로써 /i, e, ʌ, ɪ, ʏ, a, u, o, ɔ/ 9 모음 체계와

/i, e, ɪ, ʏ, a, u, o/ 7 모음 체계, 이 두 체계가 원어민들의 연령층에 따라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9 모음체계는 장년층의 언어의 음운체계를 형성하고, 7 모음체계는 연소층 언어의 모음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소층의 언어에서 변천과정을 겪고 있는 모음은 두개으로써, 제주방언 음운체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 ㄹ' 저설후모음과 전설저모음 'ㄹ'이라고 하였다. 먼저, 중세국어의 음가를 계승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후설저모음 /ㄹ/ [ʌ]에 관하여,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ʌ/를 /o/음 혹은 /a/음 합류, 소멸시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현효평은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tʰk] 'chicken'을 [tok]으로, [mʌl]을 [mol]로, [phʌt]을 [phot]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나, 허다한 경우에 /ʌ/음이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a/로 변화해져 가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연소층의 언어에서는 /ʌ/는 급격히 모멸되어 버리는 단계에 있음을 밝히었다.

다음으로 'ㄹ'와 'ㄹ'에 관하여, 오늘날 제주방언 화자들의 연소층에 있어서는 /e/와 /ʌ/ 이 두음을 잘 구별하여 습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는 연소층의 발화에서는 /te/ 'generation'와 /tʌ/ 'bamboo', /ne/ 'smoke'와 /nʌ/ 'stream', /pe/ 'ship'와 /pʌ/ 'rope'가 식별되지 못하고 있으며, /e/와 /ʌ/를 [e]음 하나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현효평은 연소층의 언어에서 'ㄹ'가 다른 모음과의 합류하고, 'ㄹ'가 'ㄹ'와 합류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장년층의 9 모음체계가 7 모음체계로 변이되어 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현효평이 제시한 제주방언의 장년층과 연소층의 서로 다른 이중 모음체계는 (3)과 같다.

(3) 장년층 모음체계 연소층 모음체계

i ɪ u i ɪ u

e ʏ o e ʏ o

ʌ a ʌ a

1982 년에 출판한 그의 논문 「제주도 방언의 개관」에서 현효평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음체계 즉 장년층의 9 모음체계와 연소층의 7 모음체계가 제주방언의 음운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현재 변천 과정을 겪고 있는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는 언젠가는 연소층의 7 모음체계로 단일화되리라고

내다보고, 연소층의 7 모음체계가 장차 확립될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라고 예언하였다.

현효평(1982)은 오늘날 한국의 제주방언에서 장년층의 9 모음체계는 연소층의 7 모음체계로 변이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일본 Ōsaka 의 제주 방언의 모음체계는 어떤 것일까? Ōsaka 의 제주 방언에서도 제주방언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겪고 있는 동일한 변천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것이 본 논문의 초점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1) 중세국어의 음가를 보존하고 있는 제주방언의 ‘랠’의 음가는 어떤 변천과정을 밟고 있는가? (2) 전설저모음 ‘逮’는 전설중모음 ‘蕞’와 합류되고 있는가? 그리하여 일본 1 세 Korean 들의 9 모음체계는 과연 7 모음체계로 향하여 변천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7 모음체계가 일본의 제주방언 화자들의 언어에서 확립될 것인가? 이 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논문에서 기술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제주방언의 변천과정을 중국 흑룡강성의 현대만주어의 변천과정과 비교하여 ‘제주 방언 얼마나 생존할까?’하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밝히려고 한다.

3. Ōsaka 의 제주방언

지금부터 한국 제주방언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아래 ‘랠’와 전설저모음 ‘逮’가 Ōsaka 의 제주방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기술하려고 한다. 먼저 제 1 음절에 나타나는 ‘랠’의 반사형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제 2 음절에 나타나는 ‘랠’의 반사형을, 마지막으로 전설모음 ‘逮’의 반사형을 기술하려고 한다.

3.1 ‘랠’ [ɾ]

3.1.1 제 1 음절 ‘랠’

(4)는 현효평(1962)의 ‘랠’[ɾ]가 92 세의 Barbara 와 41 세의 Angela 의 발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논문에서 현효평(1962)이 한국의

보수적 제주방언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현효평(1962)을 기점으로 하여 기술한다.

(4) 90 대 화자

현효평(1962) Barbara(여, 92) Angela(여, 41)

证새 证새 가위

证을 证을 가을

錕 錕 날

鍬개 鍬개 날개

鞞 鞞 닢

鯉 鯉 딸

韓 덥 여덥

든 던 여든

름 럼 여름

한국 제주방언의 후설저모음‘꺄’[ɸ]는 Ōsaka 에 거주하는 92 세 할머니의 발화에 잘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에서 출생하여 여고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이민 온 41 세의 Angela 의 발화에는 규칙적으로 후설모음이 아닌‘葡’[a]로 반영되어 있다. Angela 는 서울 표준어를 구사한다.

(5)는 80 대 할머니들의 발화에‘꺄’[ɸ]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85 세가 된 Sun 할머니의 발화에는‘꺄’[ɸ]가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기는 해도, 예외적으로 '가을'과 '마음'에서 보이는 것처럼‘꺄’[ɸ]가‘葡’[a]나‘漭’[ɸ]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효평(1962)의 ‘鑠리다’는 83 세의 Glara 는‘내리다’로 발화하여, [ɸ]는 전설화하여 [ɸ]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80 세의 Michaella 의 발화에는 제주방언의‘꺄’[ɸ]가 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고 ‘葡’[a], 나 [ɸ]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Michaella 의 발화는‘꺄’[ɸ]의 반사형으로 3 가지 [ɸ], [a], [ɸ]를 보여 준다. 이것은 Michaella 의 발화에서 제주방언의‘꺄’[ɸ]가 동요하여, 이미 인접한 모음과 합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본다.

(5) 80 대 화자

현효평(1962) Sun(여, 85) Glara(여, 83) Miichaella(여, 80)

证새 证새 가애

证을 가을 가을

錕 錕

鍬개 鍬개

鞞 鞞 달

鞞 鞞 닥

鯉 鯉 딸

ㄱ음 마음 마음

ㄱ름 ㄱ름 바름

쭈 탁

证늘다 证늘다

证르치다 证르치다

鑱리다 내리다 너리다

꺾엄수과 허엄수파

름 여름

덥 여덥

든 여든

(6)은 75 세가 된 Regio 의 발화에서 위의 Miichaella 의 발화에서와 같이 제주방언의

‘꺾’[ɸ]가 후설모음이 아닌‘葡’[a]와 합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본다.

(6) 70 대 화자

현효평(1962) Regio(여, 75)

证새 가위

证을证을

鞞 달

鯉 딸

鞞鞞

쭈 쭈

덥 덥

든 던

름 럼

(7)은 60 대 할머니 Agnes 와 할아버지 Andrea 의 발화에서 제주방언의 징표인‘꺄’[ɸ]가 자취를 감추고, ‘躡’[o] 나 ‘濳’[ɸ]. ‘迷’[ɸ]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7) 60 대 화자

현효평(1962) Agnes(여, 65) Andrea(남, 64)

鑠리다 노리다 너리다

꺄염수와 햄수파

(8)은 50 대 화자의 발화에 제주방언의‘꺄’[ɸ]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58 세의 Roberto 는‘鯉’을‘딸’,‘鑠리다’를‘네리다’로 발음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50 세의 Anna 의 발화에는‘꺄’[ɸ]의 반사음이 ‘躡’[wa], ‘葡’[a]. ‘躡’[o], ‘迷’[ɸ],‘濳’[ɸ] 등 복잡하다.

(8) 50 대 화자

현효평(1962) Roberto(남, 58) Anna(여, 50)

证새 과새

证을 과을

錐 난, 놀

鍬개 놀개

鞞 달, 돌

鞞 闕

鯉 딸 뜰

☒ 음 모심

□ 름 보름

턱 툅

证르치다 고르치다

鑠리다 네리다 내리다

淸염수와 햄수짱

韓 여덫

든 여든

름 여름

지금까지 관찰 한 것을 요약하면, 92 세의 Barbara 할머니의 발화에서는 제주방언의 징표인 ‘랠’[ɾ]가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80 대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인접한 모음과 합류하기 시작하여, 70 대, 60 대, 50 대의 화자들의 발화에 이르러서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 준다. 이 다양한 ‘랠’[ɾ]의 변화에서 어떤 변화 규칙을 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보제공자들의 연령과 다른 방언과의 개별적 접촉 경험에 따라서, 제주방언의 ‘랠’[ɾ]를 보다 빠르게 상실하기도 하고 보다 늦게 상실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표준어를 구사하는 40 세의 Angela 와 50 세의 Anna 의 발화에서 ‘랠’[ɾ]는 이미 자취를 완전히 감추어 버렸다.

3.1.2 제 2 음절 ‘랠’

(9)는 제 2 음절에 나타나는 한국 제주방언의 ‘꺄’[ɸ]가 92 세의 Barbara 의 발화에도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표준어를 구사하는 41 세의 Angela 의 발화에 제 2 음절에 나타나는 ‘꺄’[ɸ]는 ‘葡’[a]나 ‘螻’[l]로 반영되어 있다.

(9) 90 대 화자

현효평(1962) Barbara(여, 92) Angela(여, 41)

손묵 손묵 손자

모묵 모묵 모자

아꺄 아꺄 아들

鯁鯁꺄다 鯁鯁꺄다 따뜩하다

(10)은 제 2 음절에 나타나는 ‘꺄’[ɸ]가 80 대 화자들의 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85 세의 Sun 의 발화에는 ‘꺄’[ɸ], ‘葡’[a], ‘螻’[l], ‘濩’[ɸ]로, 83 세의 Glara 의 발화에는 ‘濩’[ɸ]로, 80 세의 Michaella 의 발화에는 ‘꺄’[ɸ]나 ‘葡’[a], ‘濩’[ɸ]로 반영되어 있다.

(10) 80 대 화자

현효평(1962) Sun(여, 85) Glara(여, 83) Michaella(여, 80)

모묵 모자 모저 모자

아꺄 아들 아덜

韓 여덱 여덱

鯁鯁꺄다 鯁鯁꺄다 鯁鯁하다

눈꺄다 눈꺄다 눈꺄다

꺄꺄꺄다 꺄꺄꺄다

꺄꺄이 매꺄에

(11)은 75 세의 Regio 가 제주방언의‘아鞮’을 [아덜]로, ‘모묵’를 [모자]로 발음하는 것을 보인다. 보수적 제주방언의‘蠹’[ᄒ]가 Regio 의 발화에‘葡’[a]나‘漭’[ɔ]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1) 70 대 화자

현효평(1962) Regio(여, 75)

모묵 모자

아鞮 아덜

(12)는 60 대 화자들이 제주방언의 제 2 음절에 나타나는‘蠹’[ᄒ]를‘葡’[a]나 ‘漭’[ɔ], 또는‘螻’[ɰ]로 발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2) 60 대 화자

현효평(1962) Agnes(여, 65) Andrea(남, 64)

모묵 모자 모자

아鞮 아덜 아들

(13)은 50 대 화자들의 발화에 나타나는 반사형들을 보여 준다. 58 세의 Roberto 는

제 2 음절의‘아鞮’을 [아덜]로 발음하며, 50 세의 Anna 는‘아鞮’을 [아들]로, ‘鞮’을

‘여덜’으로,‘모묵’를 [모재]로 발음한다. 어찌하여‘모재’란 반사형이 나타나는지는 꼭 흥미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Anna 는 현효평(1963)의‘곶염수과’를 ‘햄수짱’으로 발음하는 것이 주목된다.

(13) 50 대 화자

현효평(1962) Roberto(남, 58) Anna(여, 50)

모묵 모재

아鞮 아덜 아들

3.2 ‘遂’

지금부터 한국의 보수적인 제주방언의 전설저모음‘遂’가 Ōsaka 의 제주방언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14)는 현효평(1962)이 제시한 예에서 제주방언의 전설중모음‘壽’[e]와 전설저모음‘遂’[ɯ]가 Ōsaka 에 거주하는 92 세의 Barbara 의 발화에서는‘遂’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동일한 현상이 41 세의 Angela 의 발화에서도 관찰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적 제주방언을 보존하고 있는 92 세의 Barbara 와 서울표준어를 구사하는 41 세의 Angela 의 발화에 한국 제주방언의 보수적인 전설저모음‘遂’[ɯ]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4) 90 대 화자

현효평(1962) Barbara(여, 92) Angela(여, 41)

a. 개 犬 개 개

대 竹 대 대

새 鳥 새 새

b. 배 船 배 배

해 腹 해 해

재 灰 재 재

(15)의 (b)는 (14)의 예와 대조적인 것으로 현효평(1963)이 제시한 전설중모음 ‘藹’[e]가 Ōsaka 동포 80 대의 Sun 과 Michaella 의 발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현효평(1964)은 1960 년대 연소층의 발화에서 ‘遂’가 ‘藹’와 합류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80 대의 Sun 과 Machaella 가 40 년의 전의 연소층의 제주방언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15) 80 대 화자

현효평(1962) Sun(여, 85) Miichaella(여, 80)

a. 개 犬 개

내 川 내

대 竹 대

때 時 때

새 鳥 새

b. 배 船 배 배

배 腹 배 배

해 太陽 해 해

재 灰 재

그러나 50 대 화자의 발화에서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16)에 보이는 것은 현효평(1964, 1982)의 ‘해’([he] 태양)를 58 세의 Roberto 는 ‘해’[he]로, 50 세의 Anna 는 ‘해’[ɸ]로 발음한다.

(16) 50 대 화자

현효평(1962) Roberto(남, 58) Anna(여, 50)

배 船 배

배 腹 배

해 太陽 해 해

현효평(1964, 1982)은 (16)의‘해’(태양)는 1960 년 초에 장년층의 방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연소층의 방언에서만 발화됨을 관찰하고, 연소층의 제주방언에서 전설저모음 [ɯ]가 [e]와 합류한다고 해석하였다. ‘蠶’의 타모음과의 합류와‘逮’의 ‘藹’와의 합류를 근거로 하여 현효평(1982)은 제주방언의 장년층의 보수적 9 모음체계는 연소층의 7 모음체계로 변이 과정에 들어 있다고 주장하며, 7 모음체계가 장차 확립될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라고 예언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Ōsaka 의 제주방언을 관찰해 보았다. 제주방언의 징표라 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음가를 계승한 이른바 아래 닳는 80 대 이후의 화자들에게서는 인접한 모음과 합류하여 소멸되었다. 전설저모음‘逮’[ɯ]는 90 대 화자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나, 80 대와 58 세의 Roberto 발화에서는 ‘藹’[e]와 합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제주도에서 중등교육까지 받고, 일본으로 이주한 50 세의 Anna 와 41 세의 Angela 의 발화에서는 92 세의 Bargara 와 같이‘逮’[ɯ]를 보여 준다.

현효평(1971)은 장년층의 9 모음체계는 연소층의 7 모음체계로 변이 과정에 있고, 연소층의 7 모음체계가 장차 확립될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1960 년대의 장년층이란 당시 50 대를, 연소층이란 40 대 이하라고 생각하면, 2002 년 현재 당시의 장년층은 90 대가 되었고, 당시의 연소층은 70 대 80 대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이들 70 대 80 대의 제주방언의 모음 체계는 7 모음체계일까? 한편 현재 50 대의 Anna 와 40 대의 Angela 의 발화에는 아래 닳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설저모음‘逮’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현효평(1971)이 언급한 연소층의 7 모음체계란 변이 과정에 있었을지 모르나, 제주방언의 유일한 모음체계로는 확립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서울 표준어를 비교적 완벽하게 구사하는 50 세의 Anna 와 40 세의 Angela 의 발화로 미루어 보아, 서울표준어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본다. 전설저모음‘逮’가 서울표준어의 모음체계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한. 제주방언의‘逮’는 제주방언의 모음체계에 뚜렷이 존재하리라고 본다.

4. 현대만주어

중국 청조(1644-1911)의 관용어인 만주어는 일반적으로 사어라고들 한다. 만주족은 중국 대륙을 약 4 세기동안 지배하기는 했어도, 한족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Xinjiang 성의 Xibo(Sibe)족이 사용하는 Xibo 어를 제외하면 오늘날 청나라 관용어였던 만주어는 기록해 놓은 만주서면어에 잔존해 있기는 해도, 일상생활에 음성을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만주어구어는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Xibo 족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난 민족이다. 골친 몽고가 1629 년 에 Xibo 족을 청나라에 바친 후에야 비로소 청나라에 속하게 되었는데, 청나라는 Xibo 족을 오늘날의 Jilin 성 Fuyu 현과 Jilin 시에 분주시켰다. 그러나 그후 청조는 분할통치정책에 의해 1699 년과 1701 년에 걸쳐 Xibo 족의 거주지를 Beijing 과 오늘날의 Shenyang 에 소속하게 하였다. 이것이 Xibo 족의 「제 1 차 대이주」라 한다. 그런데 청나라는 1746 년 Shenyang 에 소속되어 있던 Xibo 족 관병 1000 여명과 그 가족들을 Xinjiang 성 Ili 강변으로 이주시켰다. 이것이 Xibo 족의 「제 2 차대이주」로써 현재 Xinjiang 성 각지에 거주하는 Xibo 족은 이들의 후손들이다.

Xinjiang 성에 거주하는 Xibo 족의 언어는 만주어의 1 개 방언이다. 그러나 이것이 청대 만주어 문어의 기초가 된 방언의 직계 자손인지는 그 연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나 청대 관용어였던 만주어와 아주 가깝다는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 Xinjiang 성의 Ili 지방에서 약 3 만명의 Xibo 족이 사용하고 있는 Xibo 어는 18 세기 만주어 특히 한국에서 18 세기에 출판된 『청어노걸대』에 반영되어 있는 18 세기 만주어에 아주 가깝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 Xibo 어는 18 세기 만주어에서 규칙적인 음운법칙을 적용하여 도출할 수 있는 현대 만주어 방언이다. 그러나 Xibo 족은 그들 스스로 만주족이 아니고 Xibo 족이라고 자처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Xibo 족을 만주족과는 다른 별개의 소수 민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Xibo 족이 어떻게 생각하던, Xibo 어가 청대 관용어였던 만주어를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다. Xibo 어는 청대 만주어를 계승한 언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필자는 청대 만주어는 사어라고 해서 그렇게 믿어 왔는데, 현대만주어가 중국의 동북지방 Heilongjiang 성에서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하여 Heilongjiang 성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주어란 것을 조사해 보았다. 필자가 1986 년에 베이징에 갔을 때에 Beijing 의 민족출판사에서 출판한 현대 만주어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논문을 미국 언어학회에서 1987 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현대 만주어에 관한 출판물을 입수하여 분석해 보았다.

20 세기 현대만주어를 1940 년대에 신빙성 있게 분석한 학자는 일본인 학자 Konō Rokurō(1944)이다. Konō(1944)는 1941 년에 Heilongjiang 성 Aihui 의 'Dawujiazi'라는 만주족이 사는 촌락을 친히 방문하여 채집한 자료를 1944 년에 출판하였다. 이 출판물에서 Konō Rokurō 는 어중에서 무성 장애음이

유성음화된 것을 제외하면, 1940 년대의 만주어는 18 세기 만주어와 거의 비슷한 것임을 보여 준다.

Konō 는 'Dawujiazi'란 촌락에서 만주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Fushun'씨를 만나게 되어, 'Fushun'씨의 만주어를 채집하여 기록하였다. 'Fushun'씨는 1941 년에 70 이 넘은 노인이라고 하였다. 'Fushun'씨는 3, 40 세보 보이는 차남과는 만주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Dawujiazi'란 촌락은 중국어와 만주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젊은층은 중국 관용어인 북경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Fushun'씨 일가의 언어 사용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지방의 만주어는 이후 2, 30 년은 존속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니까 'Shshun'씨의 아들이 60 세가 넘게 되는 1970 년대까지는 이 지방의 만주어가 유지될 것이나 그 이후에는 소멸할 것을 예언하였다.

Konō(1944)에 이어 동일한 'Dawujiazi' 촌락의 만주어를 현지 답사한 학자는 Wang Qingfeng 이었다. Wang Qingfeng 은 1964 년에 'Dawujiazi' 만족자치향을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하여, 1982 년에 『민족어문』에 「Aihui 만어개황」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내몽고의 Qingertai 는 Enhepatu 와 같이 1961 년에 Heilongjiang 성 Nenjiang 지역의 'Sanjiazi' 촌락을 방문하여 현지 답사하여 Qingertai 는 1982 년에 「만주어구어음」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Enhepatu 는 1995 년에 『만주어 구어 연구』란 제목의 저서를 내몽고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1980 년대 중엽에 Beijing 대학 대학원 학생인 Zhao Jie 는 1985 년에 Nenjiang 지역의 'Daxing'(Ipuqi)이란 촌락을 찾아가, 답사하여 1989 년에 『현대만어연구』를 출판하였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1985 년에서 1988 년에 걸쳐 Aisin Gioro Ulhicun 은 Heilongjiang 성 거의 전역에서 사용되는 '만주어'란 것을 현지 답사하여 1992 년에 『만주어어음연구』란 저서를 일본에서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Konō Rokurō(1944), Wang Qingfeng(1982), Qingertai (1982),

Enhebatu(1995), Zhao Jie (1989), Aisin Gioro Ulhicun(1992)이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전부 논할 수는 없다. 요점만 말하면, 1940 년대에 Konō Rokurō 는 1970 년대 이후에는 Heilongjiang 성의 만주어는 소멸할 것을 예언하였다. 이와 거의 같은 때인 1940 년에 Hattori Shirō(1940)는 「길림성에 만주어를 찾아서」란 그의 논문에서 당시 만주어는 이미 중국어화 되어서 고유한 만주어의 음운체계를 상실하였음을 예증하였다. 그러니까 1960 년대 이후에 만주족이 사는 촌락을 찾아가서 현지 조사하여 출판된 Wang Qingfeng(1982), Qingertai (1982), Enhebatu(1995), Zhao Jie (1989), Aisin Gioro Ulhicun(1992)의 저서들 속에 반영된 만주어란 것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 속에 반영된

만주어의 음운체계는 순수한 만주어의 음운체계가 아니고, 중국어 특히 북경어의 음운체계로 옷을 갈아 입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극단의 예를 하나 들면, 아래에 보이는 18 세기 만주어 ‘ulgian’(되지)이다.

이 단어는 현대 Xibo 어 에 규칙적으로 ‘vJblgǐæn’(Yamamoto 1969)과 ‘velgian’(Li Zhong Wang 1984)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Zhao Jie(1989)와 Aisin Gioro Ulhicun(1992)이 보여주는 1980 년대의 만주어란 것은 아주 어지러운 현상이다. Zhao Jie 는 6 개의 다른 반사형(φuŋkja^φ, ɕŋkja^φ, ɕŋǐa^φ, viŋkj^φ, vunki, Avnkie)을, 그리고 Aisin Gioro Ulhicun 은 4 개의 다른 반사형(unkie, Ilkie, vJbnkiA, vJbnkie)을 보여 준다.

현대 Xibo 어에는 질서 정연하게 반영되어 있는 18 세기의 만주어의 음운체계가

어찌하여 1980 년대에 현지 조사를 한 Zhao Jie(1989)와 Aisin Gioro Ulhicun(1992)은 그렇게도 어지러운 현상을 보여줄까? 한마디로 말해서 Zhao Jie(1989)와 Aisin Gioro Ulhicun(1992)이 보여주는 만주어의 음운체계는 순수한 만주어가 아니고 중국어와 만주어의 짬뽕 음운체계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언어는 변한다. 그러나 특히 음운체계는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어느 언어가 어떤 두 시기에 걸쳐 음운변천을 겪었다면, 두 시기 사이를 연결하는 규칙적인 음운 법칙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위의 Zhao Jie(1989)와 Aisin Gioro Ulhicun(1992)의 만주어는 18 세기 만주어로부터 어떤 음운 법칙을 세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이유는 현대만주어를 사용한다는 화자들이 부모나 조부모, 누구한테서 습득한 만주어가 불완전한 만주어였던 것으로 본다. 한편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타 언어로부터의 간섭도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간섭 그리고 만주어의 불완전한 습득 이 두 가지가 요인이 되어, 1960 년대 이후의 Heilongjiang 성의 현대만주어란 것은 18 세기 만주어를 계승한 순수한 만주어는 아니라고 본다. 한편 Zhao Jie(1989)와 Aisin Gioro Ulhicun(1992)는 순수 만주어 음운체계가 소멸되어 버린 이후의 음운체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일본 Ōsaka 에 거주하는 90 대 화자의 발화에는 제주방언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계승한 아래 닳을 포함하여 보수적인 제주방언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에 따라서 80 대 이후의 화자들은 일본어와 타 방언의 간섭으로 인하여 순수 제주 방언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보수적인 제주 방언을 보존하고 있는 현재 90 대 또는 80 대 화자들의 사망과 더불어 먼지 않아

언제가는 일본 Ōsaka 에서 제주방언은 그 운명을 이 방언 화자들과같이 하여 소멸해 버릴 것이다.

끝

참고문헌

金美善 「大阪市 生野區 定住 在日 코리안 一世의 日本語 運用」,

『국제고려학』 제 4 호 (1998), 135-158.

金靜子 「在日 韓國人 一世의 韓國語 日本語 混用 實態 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 學位 論文, 2000 年 12 月

鄭承喆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서울: 태학사, 1995.

玄孝平 「濟州島 方言‘蟲’音 小考」, 『无涯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濟州島 方言 ‘迷’ 音에 대하여」, 『國文學報』 2 輯, 1964.

「濟州島 方言의 單母音 設定」, 『韓國言語文學』 2 輯, 1964.

「濟州島 方言의 音韻」, 『교육제주』 17 호, 1971.

「濟州島 方言 概觀」, 『濟州道誌』 (下), 1982.

「濟州島 方言 研究에 대한 檢討」, 『方言』 1, 2, 1979.

『濟州島方言研究 論功篇』 서울: 二友出版社, 1985.

『濟州島方言研究 資料篇』 서울: 太學社, 1985[1962].

- 河野六郎 「滿洲國黑河地方に於ける滿洲語の一特色」(1944),
『河野六郎著作集 1』1979, 357-556)
- 服部四郎 「吉林省に滿洲語を採る」, 『言語研究』7, 8 號(1941).
- 山本謙吾 『滿洲語口語基礎語彙集』
東京: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 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1969.
- 杉原 達 『越境する民』 新幹社, 1998.
- 王慶豊 「愛輝滿語概況」, 『民族語文』1984 年 5 期.
- 李樹蘭 仲謙 王慶豊 『錫伯語口語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1984.
- 愛新覺羅 烏拉熙春 『滿洲語語音研究』 京都: 玄文社, 1992.
- 趙杰 『現代滿洲語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1989.
- 清格爾泰 「滿洲語口語語音」, 『內蒙古大學紀念校慶二十五周年學術論文集』,
1982.
- 恩和巴圖 『滿語口語研究』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1995.